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이 지 영
신생병원 임상심리과

손 정 략[‡]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319명의 남, 녀 대학생이었고, 측정도구로는 정서적 외상 질문지 성인 애착 질문지, 도식 질문지 및 역기능적 분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이 제시되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불안정 애착과 도식이 순차적으로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적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치료과정에서 역기능적 분노문제 및 그와 관련된 정서적 외상을 다룰 때에는 안정애착의 요소들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식들을 동시에 고려한 치료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주요어: 역기능적 분노, 아동기 정서적 외상, 초기 부적응도식, 불안정 애착

[†] 이 논문은 이지영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정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Tel: 063-270-2927, E-mail: jrson@chonbuk.ac.kr

분노는 우리가 귀기울여서 들어야 할 현재 내 안경상태에 대한 메시지(Greenberg, 2001)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게 경험되면서 가장 미숙하게 관리되는 감정 중의 하나이다(Satir, Banman, Gerber & Gomori, 1991). 상담을 찾는 상담수의 내담자가 타인을 향한 주체하기 힘든 분노감이나 자신을 통제하기 힘든 공격성 문제를 호소한다(서수균, 2007). 허봉열(2008)은 “한국은 건국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나라 못지않게 분노의 표출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분노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능적인 분노와 역기능적 분노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은 없다. Deffenbacher와 McKay(2000)는 역기능적 분노를 빈도, 강도 및 지속기간이 과도한 수준에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 표현 양상을 분노표출, 분노억제 및 분노 통제로 구분하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역기능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Tafrate, Kassinove & Dundin(2002)은 분노의 빈도, 강도 및 지속적인 삽화, 부정적인 언어 표현과 주기적인 신체적 공격 같은 표현 방식,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관계에서의 손상 및 주관적 고통이라는 네 가지 준거를 제안하고 있다. DiGiuseppe와 Tafrate(2007)는 빈번하고 강하거나 지속적인 분노삽화와 현저한 분노삽화와 연합된 직, 간접적인 공격적/표현적 행동양식중 하나 또는 둘을 모두 가진 경우를 분노 조절-표현 장애의 진단 준거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분노를 기능적 또는 역기능적으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독립된 장애로 분류하고 그 하위유형들을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으나 현재까지는 정상적

인 분노반응과 병리적인 분노반응을 감별할 수 있는 이론적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Tafrate *et al.*, 2002). 이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분노를 특성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분노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심리 치료적 접근에는 불교적 접근, 체계 지향적 접근, 정서 경험에 초점을 둔 접근, 인지 행동적 접근 등이 있다(DiGiuseppe, 1999). 각 접근들은 분노 발생의 원인을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건과 관련시키기도 하고, 양육과 같은 먼 사건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노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분노과정 자체에만 주의를 두어온 경향이 있었고, 분노와 관련된 성격변인에 대한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Robins, & Novaco, 1999). 분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로 양육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정서적 외상과 그로 인한 불안정 애착이 주목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Shapiro와 Maxfield(2003)는 발달과정 동안 양육자의 무시, 굴욕, 갈등, 거부 또는 유관 의사 소통의 결여 경험이 작은 외상으로 기능하여, 이후에 정서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chore(2003)는 초기 관계적 외상의 결과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를 분노의 행동적 측면인 공격성이라고 하였다. Teicher, Polcari, Anderson & Navalta (2003)도 외상과 스트레스는 편도체와 변연계의 과민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환경적, 대인 관계적 단서에 위협적으로 반응하여 상호작용하게 만듦으로서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Siegel의 대인 신경생물학적 접근과 가속화된 역동이론(Fosha, 2000) 및 도식 치료적 접근(Young,

Klosko, & Weishaar, 2003/ 2005)등을 포함한 최근의 이론적 관점들은 정서적 외상과 그로 인한 불안정애착 그리고 정서와 성격에서의 정신병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기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개념상의 모호성과 양적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체적 학대나 성 학대 같은 다른 유형의 외상에 비해 주목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Spertus, Yehuda & Wong, 2003). 그러다가 애착에 관한 경험적 중단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김양미, 2000; 홍수경, 2003)가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관련 연구들(김혜인, 2007; 박윤경, 2007; 박은주, 2005)이 증가하고 있다.

크고 작은 정서적 외상들의 결과로 보여지는 불안정 애착은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형 또는 도식을 형성하여 이후 대인 관계에 대한 기대와 선택, 자기평가, 타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며(장휘숙, 2000), 분노가 그 하나의 결과일 수 있음을 여러 연구들(예, 문소현, 박영주 2008; 송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 Searle & Meara, 1999)이 밝힌 바 있다.

불안정 애착의 결과로 생성되는 도식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와 관련된 도식으로 결합 및 결핍 도식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분노치료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관점들에서 보여진 분노와 자존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견에 있다. 자기심리학적 접근, 불교적 접근, 경험적 접근에서는 분노하기 쉬운 사람의 자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가정한다(Leifer, 1999, Paivio, 1999), 반면, 인지행동적 접근에서는 오히려 양자간에 부적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DiGiuseppe, 1999). 즉, 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낮은 자존감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분노와 자존감 간의 관계는 이론적 접근 간에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노와 자존감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그로 인한 불안정 애착의 결과로 낮은 자존감이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자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Young이 제안한 결합도식과 결핍도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기 정당성에 대한 욕구와 이들 도식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정당성에 대한 욕구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치료자가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결합도식의 내용은 자신을 결점이 있고 나쁘고 열등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과 관련되고, 결핍도식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연결에 대한 자신의 소망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가정의 배경에는 자기심리학과 경험적 접근 그리고 불교적 접근들에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충분한 양육(정서적 지지 결핍도식)으로 인하여 깨지기 쉬운 자기 혹은 취약한 자기(결합/수치심 도식)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데서 근거하였다.

정서적 외상, 불안정 애착, 도식 및 분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서적 외상과 분노간의 관계(김양미, 2003), 불안정 애착과 분노

간의 관계(문소현, 박영주, 2008), 정서적 외상과 불안정 애착간의 관계(Briere, 1996), 분노와 자존감 간의 관계(한동화, 2009) 등 단편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즉, 정서적 외상, 애착, 초기 부적응 도식 및 역기능적 분노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양육자를 안전하고 안정된 지지처로 간주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양육자와의 관계를 불안해하거나 회피하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외상과 불안정한 애착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의 틀로서의 도식을 형성하여 의식적 자각없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역기능적 분노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Siegel,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기에 양육자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 경험, 불안정 애착, 도식 등은 분노를 상황에 적절한 통제적 방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표출이나 억제적인 방식으로 다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이를 불안정 애착과 도식이 매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가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으로 모형검증을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참여자는 J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30명이었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질문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

생들을 제외한 총 319명의 학생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아동기 외상질문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 등(1998)이 개발한 아동기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서적 외상 측정을 위하여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3과 .70이다.

성인 애착 질문지. Simpson 등(1992)이 개발한 성인 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AAQ)를 김나리(2002)가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회피애착의 정도와 불안애착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5와 .78이었고,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를 저해하는 불안차원 문항 14, 15, 16, 17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STAXI-K:AXI). Spielberger 등(1988)의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를 전경규, 한덕웅 및 이장호(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세 가지 분노표현 양상 중 역기능적 분노척도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는 특성분노가 .84, 분노억제가 .89, 분노표출이 .93이었다.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단축형). Young 도식질문지는 18가지 초기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75문항의 6점 리커트 스타일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조성호(2001a)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도식 중 정서적 외상과 관련된 결합도식과 정서적 비지지 도식(이하, 결핍도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는 .93과 .89이었다.

분석 방법

먼저 기초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6.0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구성하는 하위척도인 정서적 방임과 학대, 불안정애착을 구성하는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초기 부적응 도식을 구성하는 결합도식과 정서적 비지지 도식 및 역기능적 분노를 구성하는 역기능 분노 1, 역기능 분노 2, 역기능 분노3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인 AMOS 5.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측정한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잠재변수 측정치와 종속변인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수인 정서적 외상은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구성되어 있고, 불안정 애착은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식은 결합도식과 결핍도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기능적 분노는 역기능 분노1.

표 1. 모형에 투입된 변인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

	방임	학대	회피	불안	결합	결핍	역기능1	역기능2	역기능3
방임	-								
학대	.310**	-							
회피	.267**	.359**	-						
불안	.215**	.354**	.325**	-					
결합	.263**	.203**	.380**	.361**	-				
결핍	.369**	.480**	.535**	.396**	.447**	-			
역기능1	.214**	.252**	.225**	.223**	.119*	.198**	-		
역기능2	.201**	.324**	.226**	.219**	.100	.210**	.921**	-	
역기능3	.214**	.261**	.229**	.175**	.127*	.204**	.927**	.925**	-

*p<.05, **p<.01(양방검증)

역기능 분노2, 역기능 분노3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얼마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정서적 외상, 불안정 애착, 초기부적응 도식으로 구성된 잠재변인들과 이들 각각에 대해 2개의 측정변인이 포함되었고, 역시 잠재변인인 역기능적 분노에 대해서는 3개의 측정변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X^2 = 46.88$, $df = 21$, $p < .001$; CFI = .985; TLI = .968; RMSEA = .062,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가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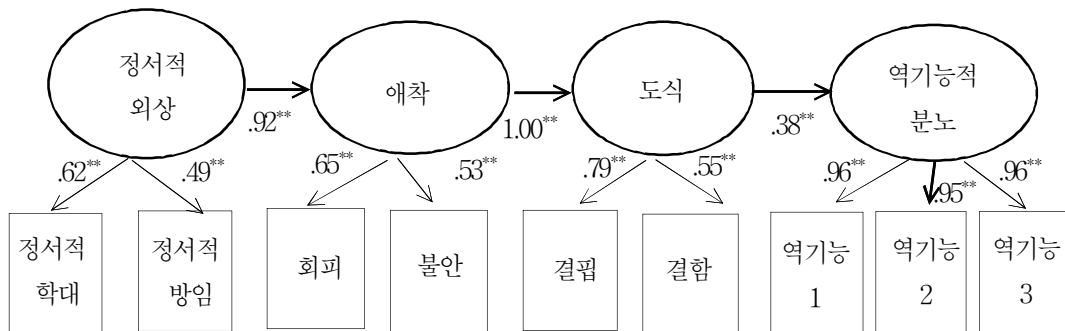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그림 1)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순차적으로 정서적 외상을 매개하여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에서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의 검증결

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X^2 = 59.55$, $df = 25$, $p = .000$; CFI = .980; TLI = .965; NFI = .967; RMSEA = .066을 보여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로, 완전매개 모형의 매개 효과에 대한 Sobel test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에서 불안정 애착을 거쳐 도식으로 가는 경로에서 Z값이 4.63을 보이고 있고, 불안정 애착에서 도식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로 가는 경로에서 Z값이 4.13을 보이고 있어서 매개효과가 유의함으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불안정애착과 도식이 순차적으로 정서적 외상을 매개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역기능적 분노의 발생 기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갖는 매개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순차적으로 불안정 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하여



** $p < .01$ (양방향검증)

그림 1. 완전매개모형

역기능적 분노에 완전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조 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아동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외상은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별되는 불안정 애착, 결합도식과 결핍도식으로 구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 그리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로 구성된 역기능적 분노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세 변인이 역기능적 분노를 예언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애착과 분노간의 관계(김해진, 2006; 문소현, 박영주, 2008), 정서적 외상과 애착 및 분노와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이지영과 손정락(2009)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다음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순차적으로 불안정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의 가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외상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불안정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한가지 가능성은 아동기 부모 또는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외상경험이 불안정 애착수준에 영향을 주고, 불안정 애착수준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표상, 특히 취약한 자기와 지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불만을 내포하는 초기부적응 도식에 영향을 주어, 이후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역기능적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노삽화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에 더해서, 정서적 외상으로 인한 영향,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성,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걱정과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경향성으로 구성되는 불안정애착의 요소 및 스스로 나쁘거나 부적절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결함도식 혹은 지지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는 결핍도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분노의 치료적 개입에 포함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외상이 아니어도, 특히 양육자와의 반복적이고 작은 외상들이 애착유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 청소년 혹은 성인기에 정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병리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결과(Fosha, 2003; Hesse *et al.*, 2003; Schore, 2003; Shapiro *et al.*,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외상경험과 불안정애착 경험의 결과로 병리적인 초기 부적응 도식이 생성될 수 있다는 Young 등 (2003/2005)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애착관계라는 수단을 통한 심리치료중재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가장 생산성 있는 접근임을 주장한 Siegel(2001)의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참여자가 현재 처한 상태나 상황에 의해 자료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애착의 형태에 대한 친구들의 보고를 통한 교차

타당화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서로 다른 형태의 다양한 결합도식이 있을 수 있는 데 이를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결합도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결합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누락시켰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화되고 구체화된 자료수집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많은 분노 관련 연구들에서 가정해온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경험, 불안정애착 및 초기 부적응 도식과 같은 변인들이 역기능적 분노와 가지는 인과적 관련성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역기능적 분노에 이르는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예, 문소현, 박영주, 2008; Muris, Meesters & Morren, 2004)은 각각의 변인과 역기능적 분노간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혹은 두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머물러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역기능적 분노와 관련된 주요변인들간의 인과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불안정애착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외상경험이 역기능적 분노로 이어지는 과정을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나리(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미(2000).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인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 정서 표현 억제의 매개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해진(2006).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소현, 박영주(2008).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43-149.
- 박윤경(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갈등대처전략을 매개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주(2005).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자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독교 교육연구 18(1), 192-229.
- 송수미, 현명호, 윤미숙(2009). Brennan에 의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17(1), 35-44.
- 이유경(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손정락(2009).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성인애착유형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17(1), 81-89.
- 장휘숙(2000). 애착과 사랑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 93-111.
- 전검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 D.(1997). 한국판 STAXI 척도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전검규, 한덕웅, 이장호(1998). 한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 18-22.
- 조성호(2001a).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77-192.
- 한동화(2009).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불안, 우울, 자존감의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봉렬(2008). 특하면 부글부글. 문화일보, 2008. 9. 2. 기사에서.
- 홍수경(2003). 아동학대가 아동의 부적응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nstein, D. P. & Fink, L.(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TX: Harcourt Brace, San Antonio.
- Briere, J.(1996). A self trauma model for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e child abuse. In Briere J, Bulkley JA, Jenny C, Reid T(Eds). *The ASP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pp. 140-157), California: Sage.
- Deffenbacher, J. L., & McKay, M.(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DiGiuseppe, R, & Tafrate, R. C.(2007). *Understanding anger disorder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osha, D. (2000). *The transforming power of affect: A model for accelerated change*, NY: Basic Behavioral Science.
- Fosha, D. (2003). Dyadic regulation and experiential work with emotion and relatedness in trauma and disorganized attachment. In M. F. Solomon & D. J. Siegel(Eds.).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 (pp, 221-281), NY: Norton.
- Greenberg, L. S.(2001). *Emotion-focused therapy*.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sse, E., Matin, M., Abrams, K. Y., & Rifkin, A.(2003). Unresolved states regarding loss or abuse can have second generation effects: Disorganization, role inversion, and frightening ideation in the offspring of traumatized, non-maltreating parents. In M. F. Solomon & D. J. Siegel(Eds.).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pp, 57-161), NY: Norton.
- Muris P, Meesters C, Morren M.(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scent: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 257-264.
- Robin, S & Novaco, R. W. (1999). System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25-337.
- Satir, V, Banman, J., Gerber, J., & Gomori M.(1991). *The Satir model :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ore, A. N.(2003). Early relational trauma, Disorganized attachment & the development of a predisposition to violence. In M. F. Solomon & D. J. Siegel(Eds.).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pp, 107-167). NY: Norton.
- Searle, B. & Meara, N. M.(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2), 147-158.
- Shapiro, F & Maxfield, L.(2003). EMDR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 psychotherapy treatment. In Solomon M. F. & Siegel D. J.(Eds.).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pp, 196-220). NY: Norton.
- Siegel. D. J.(2003). The developing mind and the

- resolution of trauma. In M. F. Solomon & D. J. Siegel(Eds.).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 (pp. 1-56). NY: Norton.
- Spertus, L. I, Yehuda, R, & Wong M. C.(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 1247-1258.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 5-30). NY: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Y: Springer Verlag.
- Tafate, R. C., Kassinove, H., & Dundin, L.(2002). Anger Episodes in high- and low-trait-anger community adul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1573 - 1590
- Teicher, M. H. Polcari, A. Anderson, S. L., & Navalta, C.(2003). Neurobiological effects of childhood stress & trauma. *Relational Perspectives book series*, 3 ; 211-238.
- Young, J., Klosko, J. S., & Weishaar, M. E.(2005). 심리도식치료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아, 유성진, 이지영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3년에 출판)
- 원고접수일: 2010년 1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1월 3일
게재결정일: 2010년 11월 27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4, 841 - 851

The Examination about Mediation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Ji Young Lee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Shin-Saeng Hospital

ChongNak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mediation model in which insecure attachment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would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A total of 319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which means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early maladaptive schemas is mediated by insecure attachment and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dysfunctional anger is mediated by early maladaptive schemas. Therefore, it would seem that the model that deals with elements of secure attachment, schema and childhood emotional trauma all together is useful for dysfunctional anger approac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the true source of dysfunctional anger would be not a current stimulus, but the effect of interaction that current stimulus and traumatic event in store to various memory representations of the past.

Keywords: dysfunctional anger, insecure attachment, early maladaptive schema.